

5·18 묘지 찾은 부산 문학도들 영령들 비문 읽어가며 절로 숙연

동아대 교수·학생 150명 참배...조선대 신형철 교수 특강

학생들 “‘임 행진곡’ 기념곡 지정돼 송고한 뜻 확산됐으면”

다시 돌아온 5월, 영남의 문청들이 광주 민주묘지를 찾았다.

부산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학생과 교수 150여 명이 지난 3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들은 현장답사 및 문학기행 일환으로 민주화운동의 성소(聖所)인 5·18민주묘지를 찾아 민주 영령의 넋을 기렸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5·18광주민중항쟁 3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이러한 시점에 영남지역 대학생들의 5·18민주묘지 참배는 지역 간, 세대 간 오월 정신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안팎의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치 않다.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광주정신을 왜곡하고 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이날 민주묘지를 찾은 학생들은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마저 부정하는 세력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이 인터넷에 퍼뜨리는 괴담에 대해서는 민주정신의 보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학부대표인 3학년 최대명 학생은 “수많은 묘역들을 보고 하니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며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반드시 기념곡으로 지정돼 송고한 뜻이 널리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학년 호나혜 학생도 “민주 영령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김덕순 해설사의 안내로 민주묘역 현황과 80년 5·18당시의 정황, 전개 과정 등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대부분 민주 묘역을 처음 방문한 학생들은 80년 빛고을에서 자행되었던 살육의 참상에 놀라다는 반응을 보였다.

참배를 마친 이들은 묘역으로 이동, 영령들의 비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그날의 참상을 떠올렸다.

학생들을 인솔한 소설가 함정임 교수는 “이곳은 역사의 성소이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삶의 성소”라는 말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역사적 성



지난 30일 국립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은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학생과 교수 등 150여 명이 참배를 마친 후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소가 문학의 성소로 승화되고 확장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80년대 망월동 구 묘역 시절에 방문했다는 극작가 정봉석 교수의 감회는 남달랐다. 정 교수는 동 세대로서 지나는 역사에 대한 부채 의식을 이야기했다.

“그 날에 나는 어디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없다. 가슴이 무거울 뿐 아니라 그 자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

다.”

참배를 마친 이들은 민주 문예 세미나실로 이동해 조선대 신형철 문예창작과 교수의 특강을 들었다. 대구 출신으로 2014년 조선대에 부임한 신 교수는 이날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문학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 삶의 의미 등을 풀어냈다.

특히 신 교수는 2013년 미국 스티브 맥

킨 감독이 제작한 영화 ‘노에 12년’을 모티프로 ‘surive(생존)’와 ‘live(삶)’의 의미를 이야기했다. ‘노에 12년’은 노예로 납치된 주인공이 단 한순간도 희망을 놓지 않고 탈출에 성공한다는 이야기다.

신 교수는 “‘surive’가 노예의 삶이라면 ‘live’는 자유인의 삶”이라면서 “지금처럼 생존이 제1의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묻고 추구해

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의 강연은 35년 전 송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민주 열사들의 삶과 자연스레 오버랩되었다. 단순한 생존이 아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던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다르지 않을 터였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임 행진곡” 제창 거부땐 기념식 불참

5·18 기념행사위 기자회견...박대통령에 면담 요청

5·18 민주항쟁 35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기념행사위)가 오는 6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을 요청하는 대통령 면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년도와 같이, 기념식에 불참하고 국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념행사위는 지난 30일 오전 광주시 동구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거쳐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위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면담 요청을 공문으로 한데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및 기념식 제창 등 면담 목적도 언급한 만큼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실상 기

념곡 지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행사위는 이같은 점을 감안, “국회가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냈음에도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5·18의 가치를 왜곡·부정하는 처사”라며 “‘지난 2008년까지 5·18 기념식 공식 식순에 포함돼 행진곡을 제창했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사위는 면담 거부 및 기념곡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념식 행사 불참 및 5월 기념행사를 위한 국가 예산(1억 2200만원) 반납’ 등을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세계인권도시 포럼 15일 개막

109개 도시 500명 참여 18일까지 광주 DJ센터

2015세계인권도시포럼이 15~18일 광주 대동문화센터에서 개막한다.

전 세계 109개 도시에서 5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은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들의 전 지구적 연대 II’란 주제로 열린다.

개회식에 이어 윤정현 광주시장, 맥코넬 캐나다 토론토 부지사 등의 기조연설, 세계 주요 인권도시 정책 사례를 나누는 인권도시정책 회의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지난 2011년 5월 17일 열린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채택된 광주인권도시선언문에 명시된 인권도시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여는 연례 회의다. 민주, 인권, 평화도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광주가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한 주춧돌이 되고

있다. 이번 포럼 주제 회의는 국가폭력, 노인, 어린이청소년, 여성, 장애, 사회적 경제, 이주인, 환경 등 8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지방정부와 인권 전문가 워크숍,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 아시아 인권과 인권도시의 전망 등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도 열린다.

포럼 기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 인권테마역사, 5·18아카이브센터 방문 등 부대행사도 선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인권도시포럼에는 역대 가장 많은 해외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광주가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국회 본회의 압도적 찬성...9월 중순부터 시행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폐쇄회로(CC) 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차 190명 가운데 찬성 184,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유아 폭행 사건의 여파 속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적잖이 나와 부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넷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다.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밖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4개월 뒤부터 시행되므로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9월 중순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12월부터 인터넷 신문에 음란·선정성이 있거나 폭력성이 강한 광고·기사 등을 실을 수 없게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로 하여금 ‘청소년 보호 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이들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 언론사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또 지진 참사로 막대한 재산 손실과 인명 피해를 본 내팔의 복구 지원을 촉구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결의안과 복구 지원을 위해 의원 세비의 3%를 각출하는 내용의 ‘의원금 각출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연합뉴스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보조금사기·금융사기 / 성폭행·성추행】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장)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행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복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식후 혈당 상승억제에 도움!!
Ym 유한메디카 **클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oMNAVER 백세생활건강 ▶ ▶ ▶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30% 할인

근조화환3단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30% 할인

축하화환3단
결혼, 고회, 전사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화환 ▶ 100,000
전국농장직영 전국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0